

남원시, 국가예산 증액 확보

순창군, 재난관리 분야 두각

2025년도 국비 1634억원 확보... 전년 대비 188억원 증가

남원시가 건축 재정과 탄핵정국 속에서도 중점 확보 대상사업 162건에 2025년도 국비 1,634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국비 확보액 1,446억원 대비 188억원(13%) 증가했으며, 총사업비는 1조 4,355억원 규모로 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액 편성만 진행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룬 성과로 의미가 크다.

또한 전략적인 공모 대응을 통해 75개 사업에 선정되어 총 2,06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2,020억원 대비 49억원 증가한 규모로, 3년 연속 2,000억원대 공모사업 선정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더해 시는 스마트농업 육성지



최경식 남원시장

구 조성사업 등 총사업비 595억원 규모 6개 사업의 공모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연말 내 추가로 공모에 선정될 경우 그 확보액은 더 커질 전망이다.

시는 국비 확보를 위해 최경식 시장을 중심으로 연초부터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수시로 실시하고, 관련 중앙부처와 국회 등 수시 출장으로 사업 설명 활동을 펼쳐왔으며,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는 지역구 박희승 의원과 전복도·부처·정치권과의 유기적인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확보한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공촌산업 거점단지 조성(총사업비 250억원) △대규모 스마트팜 창업단지(240억원)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건립(240억원) △지리산 남원 예코촌 조성사업(120억원) △청년 농촌보급지리 조성(90억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181.5억원) △등구평생 풍수해생태권 종합정비(313억원) 등이 있다.

또한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건립(190억원) △꽃힐 목공예 전시관 건립(150억원) 등 계속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도 적극 힘쓰며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하지만 국회 감액예산 처리로 △남원 경찰수련원 신축(443억원) △첨단 드론스포츠 활성화 지원센터(190억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내년도 정부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최경식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과 예산 삭감 등 제약적인 환경 속에서도 1조4천억원대의 국가예산을 확보한 것은 시장 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남원시 미래성장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남원시 장기 발전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올해 행안부 우수기관 선정 · 전북자치도 우수기관상 등 수상

순창군이 2024년 한 해 동안 재난관리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전국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군은 철저한 안전점검과 선제적 재해 대비,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여러 정부 기관으로부터 연이어 우수기관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군은 올해 행정안전부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8,900만 원과 시상금 400만 원을 받았으며, 대형 재난에 대비한 안전한군현에서도 뛰어난 대응력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재난 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했다.

아울러, 군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집중안전점검에서 안전 취약분야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며 전북자치도 우수기관상을 수상하고, 겨울철 대설과 한파 대비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상을 차지하며 계절별 맞춤형 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했다.

특히, 순창군 방재단의 활약도 눈에 띄었다. 방재단은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전라북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이를 통해 500만 원의 시상금도 받았다.

이외에도, 여름철 극한 호우에 대비해 지방 하천의 응급 복구와 피해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하천 퇴적토사 제거로 재해 예방에 기여한 성과와 함께 군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선제적 안전 감찰 활동을 펼쳐 지방 하천 정비와 안전 감찰 분야에서 전북자치도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군의 안전을 위해 누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난 관리와 안전 점검을 통해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왕원 기자

지역 소식 통

이상일 순창소방서장
종교시설 현장방문 지도

순창소방서 이상일 서장은 18일 순창군 순창읍 소재 순창제일교회를 방문해 다가오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대비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말을 보낼 수 있도록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적극적인 주의를 당부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에는 많은 인파가 몰리는 장소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또한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가 있기에 각 종교시설 관계자께서는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신경써주시길 바라고, 특히 비상구를 항상 확인하는 등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주요 지도내용은 △소방·방화·파난시설 유지관리 철저 △비상구 주변 장애물 적치 금지 △소화기 및 옥내소화전 사용법 △화재시 119신고요령 등 긴급대응요령 등이다.

이상일 소방서장은 "안전한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과 관계인 모두의 세밀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순창=이왕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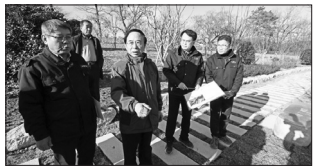
임실군, 기후 위기 대응 사선대 도시숲 조성 완료

산림 분야 탄소중립 실현 박차

임실군이 올해 산림청 기후대응기금 사업비 9억원으로 관촌면 사선대 일원에 도시열섬 및 폭염 완화, 탄소흡수,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생활권 지역에 대규모 숲을 조성했다.

사선대 기후 대응 도시숲은 지난해 9월 사업대상지 10,000㎡를 확정하고, 올해 5월 실시계획용역 완료 후 6월부터 9월까지 행정절차를 마치고, 10월부터 사업추진을 하여 12월 사업을 완료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환경 오염 저감, 기후조절 등 도시숲의 기능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 지구 이상기온



의 기후 대응에 적합한 교목으로 느티나무를 비롯한 13종 396주, 관목은 나무수국 등 6종 5,700여주, 지피·초화류는 3만2,000여본을 어울리게 배치하여 식재했다.

시설물은 주차장 1개소, 산책로 327m, 그늘 5점, 옥외 벤치 18개, 안내판 등 편의시설을 설치했다.

군은 올해 도시숲 예산 9억원으로 도시숲 6개소, 가로수 5개소, 학교숲 2

개소를 관내 쾌적한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2025년에는 도시숲 조성 사업비 12억원을 확보, 임실군 생활권 내에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푸르고 아름다운 녹색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자체 예산을 추가 편성해 지역 주민의 생활공간과 밀접한 유흥지에 쉼터를 조성하고 기존 조성된 녹지공간을 유지·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앞으로도 관내 도시숲 조성으로 군민 및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녹지환경을 제공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 대응에 산림 분야에서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민원실 직원 대상 친절교육 마무리

남원시는 18일,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친절 민원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2024년 친절교육을 민원실 직원을 대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박영재 경제건설국장의 "미소와 소통으로 만드는 작은 변화"라는 주제로 "타고난 친절은 없으므로

미소를 연습하고 유지해서, 밝은 미소와 배려의 한마디로 더 나은 서비스와 소통을 제공 해줄 것"을 당부했다.

민원실 직원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인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 친절교육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민원인



들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서비스 실천, 적극행정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지적·토지·지적재조사업무 종합평가 '우수'

순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실시한 2024년 지적·토지·지적재조사업무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양질의 토지정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도내 1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토지정보 업무 추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 분야는 △토지관리 업무 △지적정보 업무 △토지조사 업무 △공공간정보 업무 △특수시책과 수범사례 5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다.



군은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와 신뢰도 향상,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을 위한 지적행정, 도로명주소 활용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지적재조사를 통한 군민 재산권 보호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순창=이왕원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괄난 항의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문화재청 제공>